

지역 매아리

정읍시, 시내 곳곳 화단 · 공원 꽃잔디철쭉 등 다양한 봄꽃 식재

4월의 정읍이 화사한 봄꽃으로 물들어 가고 있다.

16일 정읍시에 따르면 봄을 맞아 시내 곳곳에 있는 화단(15개소)과 소공원(17개소), 꽃박스(229개)에 다양한 봄꽃을 심었다.

최근 이곳에서 선명한 원색의 튤립과 형형색색의 팬지를 비롯 진분홍이 아름다운 꽃잔디와 철쭉 등이 일제히 피어 화사한 자태를 자랑하며 지나는 이들의 발길을 잡고 있다.

특히 내장산 단풍생태공원이 대표적인 봄철 명소로 떠오르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철쭉과 홍도화, 돌단풍과 꽃잔디, 모과 나무, 단풍나무 등 각양각색의 꽃들과 나무가 어우러진 모습이 장관인데다 봄 기운이 한창 오른 내장산국립공원의 조화가 더 없이 아름답다는 평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름답고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을 위해 계절별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데 주력해서 시민은 물론 방문객들이 '보고, 느끼고 만족하며 다시 찾고 싶은 정읍'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경찰서, 범죄예방 우수원룸 인증제 시행

부안경찰서(서장 이동민)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 하려고 여성과 1인 가구가 많은 원룸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우수원룸 인증제'를 시행한다.



원룸형 주거시설이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 관리실이 없고 범죄예방시설 구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경찰은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하고 함께 하는 공동체인식을 강화한다는 목적이다.

이를 위해 부안시 범죄예방단팀(CFO)은 "경찰은 범죄예방 가능성이 큰 원룸에 대해 범죄예방시설을 개선하고 건물주는 우수 원룸 인증으로 건물홍보 하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범죄예방 우수 원룸 인증제도는 범죄예방단팀(CFO)이 직접 현장을 진단·분석하고 시설에 대한 감시성 접근 통제, 안전시설 등 56개 항목에 대해 총점 80% 이상을 충족하면 우수 원룸으로 인증, 경찰서 인증패를 수여하고 2년마다 재인증을 실시한다.

/부안=이옥수기자

고창생물권보전지, 해외서 '주목'

슬로바키아 언론 방한... 보전현황 · 향후 계획 등 취재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고창군의 아름답고 청정한 자연생태자원이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16일 고창군에 따르면 슬로바키아 언론인들은 지난 10일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전반을 취재하기 위해 방한했다.

한국의 산업발전상, 남북문제 및 이산가족 K-pop, 그리고 한국의 자연유산이란 주제를 다루기 위해 방한한 이들은 행정구역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인 고창군을 '한국의 자연유산'의 산실로 보고 지난 14일 고창에 방문했다.

군 관계자들은 슬로바키아 언론인들의 한국의 문화융성 콘텐츠를 비롯한 고창의 청정한 생태환경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며 상세히 안내하고 취재를 지원했다.

이번 방한은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주관하는 '2018 해외인문인 개별초청' 사업의 일환으로 해외 유력 언론인을 초청하여 한국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해 취재하고 한국에 대한 해외 보도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를 통해 한국에 대한 해외 인지도를 높이고 올바른 인식을 유도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파하고 국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슬로바키아 언론인들은 고창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에 방문하여 관리 및 보전현황,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한 후 고인돌박물관을 시작으로 운곡림사르습지, 람사르고창갯벌센터로 이동하며 본격적으로 고창생물권보전지역을 취재했다.

슬로바키아 언론인들은 고창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에 방문하여 관리 및 보전현황,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한 후 고인돌박물관을 시작으로 운곡림사르습지, 람사르고창갯벌센터로 이동하며 본격적으로 고창생물권보전지역을 취재했다.

이들이 방한해 취재한 촬영 분은 다음달 5월에 슬로바키아 공영방송인 RTVS(Radio and Television Slovakia) 내 다수 방영될 예정이다.

한국을 처음 찾은 안드레아 시포스 파 기사는 "고창생물권보전지역은 자연

생태환경 뿐만 아니라 문화와 역사, 전통문화가 너무나 잘 어우러진 곳"이라며 "이번 방문을 통해 느낀 청정한 자연생태도시 고창을 슬로바키아 사람들에게도 온전히 전하겠다"고 말했다.

군 생물권보전사업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름답고 청정한 생태도시인 고창을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로도 널리 홍보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창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지역특화산업 육성

정읍시 패브릭아트협회 6월 말경 공식 출범

정읍지역 직물 관련 종사자들과 업체 관계자들이 패브릭(면직물)아트 협회를 창립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달 말경 협회 창립 준비 모임을 거쳐 6월 말경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면직물은 지난해 말 선정된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 공모에서 선정된 '지역특화산업 락·차·면·솔로 살리는 시민경제도시, 정읍(이하 지역특화화산업)'에 포함된 정읍의 특화산업 중 하나이다.

지역특화산업 관련 면 분야 사업은 "입업면 대흥리 일대를 중심으로 운

영되고 있는 면직공장을 비롯한 지역 내 면 관련 산업체와 지역의 소규모 공장 간 협업, 그리고 산업화 지원을 통해 원도심 등 기능이 쇠퇴된 도시의 재활성화를 꾀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협회 창립은 이 사업을 주된 주도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또 패브릭아트 공예와 직물 등 관련 분야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 사업 활성화와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이기도 하다.

협회는 정읍시 패브릭 아트와 디자

인 전반에 걸친 산업화와 디자인 컨설팅, 창업 지원에 따른 관련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전국 단위 아트 페어 참여와 유치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 추진에도 나선다.

한편 시 관계자는 "협회를 보다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와 전문기관에서도 나설 예정이다"고 밝혔다.

관련 문의 등은 시 도시재생과(☎063.539-5803)나 정읍시 도시재생지원센터(☎063.539-5815)에 하면 된다.

/정읍=김대환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고창군, 전국시조경창대회 성료

대상부 김웅광, 장원 · 문화체육부장관상 수상

선조들의 삶을 창 문화로 계승한 시조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행사인 '제16회 전국시조경창대회'가 (사)대한시조협회 고창지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고창군이 후원하여 지난 13일 고창 동리국악당에서 열렸다.

우리민족의 전통문화인 시조창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이를 이어갈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이길수 고창부군수, 최인규 고창군의 의장 유상엽 국회의원 한 국시조협회회 이영준 회장 박종

은 고창예총회장, 정우근 대화장 정재선 대한시조협회 고창지회장 등 전국 각지의 시조 동호인 2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 대회에는 명창부 10팀, 합창부 10팀, 대상부 23팀이 참가하여 열띤 경연을 펼쳤으며 그 결과 ▲명창부 고희재(태안군) ▲합창부 남도장기진홍희(여수시)가 각 부문 1위를 차지했고 ▲대상부에 참가한 김웅광(임실군)씨가 제16회 전국시조경창대회 장원의 영예와 더불어 문화체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 해경, 사건 · 사고 대응 총력

지난 주말동안 부안해양경찰서(서장 박상식)가 도서지역 응급환자 후송 등 사건 · 사고 대응에 총력을 기울였다.

지난 15일 오전 11시 13분경 부안군 위도면 하왕등도 서방 11해리 해상에서 선박 A호(예인선, 200톤, 부산선적, 승선원 5명)이 스크류에 어망이 걸려 항해가 불가능하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이에 부안 해경은 322 경비함을 현장에 투입하여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민간잠수사를 섭외하여 현장에 급파하여, A호는 스크류 어망 제거작업을 마치고 무사히 마산항으로 이동했다.

또 이날 오후 2시 18분경 위도보전소에서 관광객 B씨(전북 완주, 여, 51세)가 급성신우신염 증상으로 손발 저림 등 증상을 호소하며 응급환자 이송요청함에 따라 즉시 경비정(103정)을 동원하여 김제중앙병원으로 후송 조치하였다. 이날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으로 인한 해상기상 불량으로 여객선이 통제 중인 상태였다.

부안 해경 관계자는 "안전한 바다를 유지하기 위해 주말 동안 상시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안=이옥수기자

고창군, 이월체납액 최소화 행정력 집중

5월말까지 상반기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집중기간 운영

고창군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오는 5월말까지 상반기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집중기간으로 정하고 이월체납액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군은 이길수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체납세 정리 추진단을 구성해 5월 까지 체납 징수목표액인 5억2500만원을 징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아울러 각 읍·면에 플래카드 게시, 홈페이지와 군청 전광판을 통한 체납 지방세 일제정리 집중 기간을 홍보하고 매일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자 스스로 체납액을 납부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체납세 정리 추진단은 지속적으로 체납자의 납부를 독려하고 부동산 예금, 급여, 신용카드매출채권 등을 압류·추심하는 등 체계적인 체납자분을 추진하고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 등록, 명단공개, 출금금지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강화해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고 체납의 주 세목인 자동차세 체납 정리를 위해 차량 압류 및 2회 이상 체납시 변호관 영치, 공매처분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들의 자진 납세의식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는 한편 강력하고 다양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매일 체납고지서를 발송되어 자진 납부하여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Mulberry Wine advertisement featuring bottles, gift sets, and promotional text for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Includes text lik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병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and '부안강산 Premium Otdi Wine'.